

지방소멸 대응 ‘기업 경쟁력 강화’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탄력

장수군, 21일까지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대상자 모집… 기업당 최대 5000만원 지원

장수군이 지역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1일까지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사업’은 인구소멸 지역 내 업체들의 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장수군은 지역 전라산업인 레드푸드 및 스마트농업과 연관된 중소기업과 창업기업(보사, 공장, 연구소 등 1개

이상 소재)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또한 △창업기업 경영·기술 컨설팅 △농가혁신 애로기술 컨설팅 △제품 고급화 △마케팅 △시험분석·인증 △지식재산권 획득 △농가혁신 기술 애로(공정개선) 등의 사업을 기업당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군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장수군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지역 창업기업, 농산업 전·후방기업 등

을 대상으로 사업 소개, 신청 방법 안내 및 질의응답과 현장 상담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 신청은 기업지원사업관리시스템(SMTECH RMS)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장수군 홈페이지 공지사항·공고를 참고하거나 전북테크노파크 또는 캠퍼스종합기술원(063-219-0388)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국민들 민주주의 수호열망이 대한민국 위기서 구해”

무주군의회, 윤석열 파면 결정 환영 입장 발표

무주군의회(의장 오광석)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결정을 환영하며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무주군의회는 이날 윤석열 파면 확정 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기다려온 국민들의 민주주의 수호열망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했다”고 말했다.

무주군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집권 후 3년 동안 보여준 행태는 가관이었다. 무능한 상황판단과 계획 없는 정책으로 국민 삶이 파탄났다. 무속인이 대통령실을 움직인

다는 말이 꺾임없이 나왔고 야당과의 대화는 실종됐으며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일이 일상이었다”고 지적했다.

무주군의회는 이어 “경제, 외교·안보,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준 윤석열은 끝내 군인을 앞세워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 역사상 이토록 짧은 시간에 나라를 만신창이로 만든 과물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무주군의회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한 데 대해 “윤석열 파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고 헌법재판소가 그 기회를 살렸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

중하고 지키려는 국민들의 의지가 통했다”며 “협치가 살아있는 정상국가로 되돌아갈 교두보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무주군의회는 윤석열 탄핵 확정 후 첫 번째로 반민주적 행위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후대에 반국가 세력을 단죄한 역사를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숨어있는 계엄 부역자들을 모두 찾아내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군의회 의원들은 또한 “양정을 꿈꾸다 비참한 최후를 맞은 윤석열과 김진희를 반면교사로 삼아 주권을 섬기고 국민을 우러러보는 정치를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의회,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점검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욱)는 제299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사업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향후 군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백운면 공공임대주택,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미이산 토탈관광체험센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농특산물 판매장 등 13개소를 방문했다.

의원들은 각 사업장의 운영 상황 및 문제점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

해 지적하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최근 준공된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군에서 추진 중인 치유관광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하는 등 지역과의 상생 발전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미이산 토탈관광체험센터와 농특산물 판매장 등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를 거쳐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과 추진을 당부했다.

동창욱 의장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해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자원사업 공모 2년 연속 선정… 사업비 2000만원 확보

무주군이 2025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돼 사업비 2천만 원을 확보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주관한 이번 공모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재산 활용 가치를 제고하고 지방세입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무주군은 2024년 한 해 동안 총 1,367필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해 유휴재산 및 무단 점유 의심 재산의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해 주목받았다. 유휴 공유재산은 무주군 누리집에 공개, 민간 활용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사용도 함께 도모해 왔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단 점유가 의심되는 82개소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점유자들에게 적법한 사용 절차를 안내했으며 대부 및 사용 허가 등 행정 조치를 통한 해소 방안도 공유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연장농공단지 현안사업 추진단 회의 개최

진안군은 지난 4일 연장농공단지 현안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역주민, 외부 전문가, 청년단체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추진단 및 부서 실무자 등 17명이 참석했다.

추진단은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모아 운영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선정된 공모사업 2건(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에 대

한 의견수렴, 협업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 방향과 전략에 대한 논의는 물론 연장농공단지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각 참여자들은 의견을 나누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진안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연장농공단지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

무주군의회(의장 오광석)는 지난 5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돌입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회에는 문은영 행정복지위원장이 위촉되었으며 결산검사 위원들은 관련 분야에 넓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현직 군의원 및 공무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결산검사는 4월 5일부터 28일까지 24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 기간 결산검사 위원들은 2024회계연도에 집행된 세입·세출,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급금 결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중점적으로 살핀다.

위촉장을 수여한 오광석 의장은 “결산검사는 예산과 재정운영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살피는 중요한 절차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 재정운영은



무주군의 행정 투명도와 군민신뢰를 높이기 위해 중요한 일”이라며 결산검사 위원들의 다양한 행정경험과 전문식견이 녹아있는 결산검사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문은영 위원장은 “예산 배정의 당위성과 적법한 절차, 남비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피겠다. 결산검사 결과가 이듬해 예산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무주군 재정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예방교육 실시

장수군이 4월 말까지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에서 지역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부터 과수화상병 예방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농가의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며 ‘과수화상병 예방 방제 지침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예방수칙과 농업인 안전수칙 준수사항 등을 집중 안내한다.

앞서 장수군은 올해 초 ‘재해농업인 실용교육’ 과정에서 과수화상병 예방교육을 2회 실시한 바 있으며 정기교육을 수강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4월 말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 추가교육을 진행한다.

박철수 기술보급과장은 “올해부터는 과수화상병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공적방제 시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20% 감액된다”며 “농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과수화상병은 주요 과수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전염병으로 정기적인 예방교육과 철저한 방제가 확산 방지의 핵심이다. 군은 앞으로도 농가의 인식제고와 지속적인 현장 지도를 통해 안전한 과수 생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영양만점 이음식 만들기’ 프로그램 호응

진안군은 지난 4일 출산부와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영양만점 이음식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유아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생후시기에 맞는 이유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실습 교육을 진행해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교육에서는 △이음식 도입 시기, △단계별 섭취 식품, △이음식 보관 방법과 주의사항 등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했다. 또한, 건강한 떡갈비 간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조리 체험을 실시해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곡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